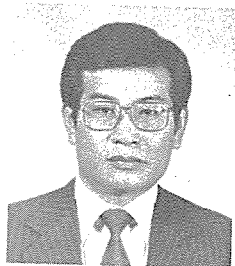


88年 乳加工業의 決算



상무이사 장성중
한국유가공협회

다사다난했던 88년도 저물어가고 낙농 유가공업의 발전을 기약하는 대망의 89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유가공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먼저 88년중 유가공업계의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은 파스퇴르 유업의 출현이라 하겠다.

87년 9월에 탄생한 파스퇴르 유업은 탄생 직후부터 자기네 제품만이 진짜이고 기존우유는 가짜라는 기상천외의 허위 과장광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우유에는 유청단백질이 열에 변성되어 없어졌다는니, 기존우유의 칼슘은 소화할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는니,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초고온 순간 살균우유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한다는 등 전혀 사실무근의 허무맹랑한 광고선전을 통하여 자사제품의 판매확대를 노리고 있다.

물론 파스퇴르 우유가 고가(高價) 정책을 써서 기존우유보다 2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 무엇인가 기존 우유보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고 타사제품은 가짜라는 논리는 우리나라 낙농 유가공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장기적인 낙농 유가공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7월 1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도 허위, 과대, 비방광고이므로 광고선전을 중지하고 중앙 2개

신문에 사과 광고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한 바 있으나 파스퇴르 유업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광고에 이용하고 있으며 8월 19일에는 학자와 연구가 기술자들이 모인 학술단체인 한국유가공연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스퇴르 유업의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고 급기야 11월 2일 공정거래실에서는 파스퇴르 유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가장 사회정의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인양 광고하고 있는 파스퇴르 유업이 정부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광고내용과는 다른 부도덕한 기업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파스퇴르 유업의 광고가 언제까지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우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우리나라 낙농 유가공업의 퇴보를 가져오게 만드는 행위임으로 하루속히 정당한 기업윤리로서 정상적인 광고를 통하여 낙농 유가공업 발전에 동참하기를 바랄 뿐이다.

두번째로 88년에 우리에게 밀어닥친 심상치 않은 물결은 유제품 수입자유화의 파도로서 이미 4월중 우유 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움직임이 있었으나 낙농 유가공업계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저지시킨 바 있고 10월 중에는 버터, 치즈 조제분유가 연말에 수입자유화 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으나 그 보도와 진원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국이 되면서 더욱 구체화되는 현상이며 더더욱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무역 흑자국이 되므로 인하여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점 거세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제품 가격은 국제시세에 비하여 2~4 배나 비싸며 또한 원화가 절상되면 될수록 그 폭은 더욱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고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유제품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하루 아침에 도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어질 경우 언제 어느때 정책적으로 수입이 개방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고 정부도 수입자유화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입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수입자유화 품목중에서 수입 한도량을 정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던 수입감시 제도가 88년말을 기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감시 품목으로 수입량을 규제받던 품목들이 89년부터는 누구든지 수입할 수 있는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었으며 유제품의 일종인 유당과 카제인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유당은 우유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카제인은 우유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유당과 카제인을 섞으면 탈지분유와 성분이 비슷한 모조(유사) 탈지분유가 되고 여기에 식물성 기름을 섞으면 모조(유사) 전지분유가 되어 전지 및 탈지분유를 사용하던 곳에서 값이 싼 모조분유를 사용하게 되므로 국내 낙농 및 유가공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농유가공업계는 총력을 기울여 유당과 카제인을 수입자유화 품목에서 수입제한 품목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유당과 카제인이 수입자유화 될때에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의 노력이 관철 될것으로 전망되나 각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여러방면에서 계속적으로 점점 거세어질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수입개방 압력에 대하여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낙농유업계가 단합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낙농경영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형편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새벽부터 공휴일 없이 일하는 목부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목부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목부위주의 경영체계에서 목장주 직영체계의 경영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낙농을 폐업하든지 또는 직접 목장에 뛰어들어 일을 하여야 하는 기로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면은 88년 9월의 낙농통계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농가호수를 보면 전년대비 10%가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3%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알수 있는바 폐업하는 낙농가는 늘어나는 반면 호당 사육규모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8년도의 우유수급 상황을 잠시 돌아보면 84년 하반기부터 재고과잉으로 허덕이던 유업체가 87년 하반기부터 소비증가에 힘입어 그동안 쌓여있던 엄청난 재고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88년 9월부터는 원유부족 현상으로 유업체간에 집유쟁탈전이 심화되었으며 신규 유업체들의 출현은 원유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또한 원유수급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치즈와 요구르트의 소비신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88년도의 치즈는 전년대비 거의 두배나 신장하였고 요구르트는 호상요구르트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우유소비 형태는 너무나 마시는 우유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87년도의 전체 생산량중 시유의 비중은 75.4%나 되어있고 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수기의 재고분산 측면에서 볼때 치즈생산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며 유가공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서도 치즈와 호상요구르트의 소비증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88년도에 특기할만한 것으로서는 우리나라 낙농유가공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유의 생산규모는 이미 85년도에 백만톤을 넘어섰고 90년도에는 2백만톤을 넘어설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바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러한 거대한 물량의 수급조절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정부는 88년 5월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낙농업계, 유가공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정부당국자로 구성되는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유일원화를 비롯한 원유의 수급조절 등 낙농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구설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89년 7월부터 집유일원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상으로 88년도에 유가공업계를 중심으로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일들을 회고해 보았다.

이중에는 낙농유가공 발전에 고무적인 것도 있었고 저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어느산업이나 발전하는 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발전에 저해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닥칠 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과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합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발전여부의 관건이라 하겠다.

국가적으로 민주화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하여 낙농유가공업계 모두가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낙농의 장기발전을 위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저 높은 수입자유화의 물결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89년도는 우리모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낙농유가공 발전에 일로 매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해외소식

● 酪農製品은 無菌包裝으로

英國 Scottish Farm Dairy Foods Co.는 최근에 時間當 20,000컵까지 完全히 無菌的으로 컵에 充填하여 密封할 수 있는 Ampack line을 설치하였다. 이 Scottish Farm Dairy Foods社는 英國에서 가장 큰 Tetra Pack을 운영하고 있는데 無菌製品 生産과 高酸性 및 低酸性製品을 無菌的으로 生産할 수 있는 施設을 가지고 있다.

Ampack line은 多樣한 製品을 廣範하게 包裝이 可能하기 때문에 Scottish社는 여러가지 新鮮한 製品과 UHT製品을 包裝할 수 있게 되었다.

Ampack line의 內譯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Scottish社의 顧客에게 獨特한 좋은 製品을 提供하기

위해 그 包裝施設을 採用했다고 한다.

이 會社의 販賣部長은 이 새로운 Ampack 包裝기계를 設置하므로써 新製品이나 既存製品의 市場開發이 活潑해질 것으로 展望된다고 하였다.

지난 2년 사이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이 Ampack 기계를 설치 운영한 곳은 13개 工場인데 앞으로 사업개발과 더불어 빠른 速度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 機械를 만든 Engelman & Buckham Machinery Ltd.社의 販賣理事인 M. Henderson氏는 말하고 있다.

(Food manufacture Vol. 63 No. 1. p. 10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